

4. 율법과 복음 -아담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

1. 모세의 율법: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

- 1)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율법을 주심.
- 2)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하며,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임 (롬 5:20, 갈 3:19).

2. 아담의 율법: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시작

- 1) 아담에게 주신 명령(창 2:17)은 죄의 정의를 제공함으로써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율법이었다.
- 2) 이는 죄의 가능성을 통해 인간의 교만과 불신을 드러내고,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 계획이 더욱 명백히 드러나도록 하심.

3. 죄와 은혜의 역사적 경륜

- 1) 하나님의 법 없이 죄가 존재할 수 없으며(롬 4:15), 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 역할.
- 2) 그러나 이 죄 위에 은혜가 더욱 넘쳐,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의가 다스리게 됨(롬 5:20-21).

4. 사탄의 타락과 심판의 법적 기반

- 1) 천사의 타락은 법 없이 발생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고, 이를 위해 인간을 창조하시고 율법을 부여하심.
- 2) 인간이 율법을 어김으로써 사탄의 정죄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고, 십자가를 통해 결정적 심판이 이루어짐(히 2:14-15).

5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

- 1) 아담의 범죄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구속사의 출발점이며,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됨, 영생, 천국이 약속됨.
 - 2)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극명히 드러냄(엡 1:3-6, 롬 11:32).
-

4. Law and Gospel

Subtitle: The Law of Adam and the Law of Moses

1. The Law through Moses: To Reveal Sin and Elevate Grace

- 1) God gave the Law through Moses because Israel, having forgotten His grace, repeatedly sinned.
- 2) The Law reveals sin and leads to a recognition of the need for grace (Romans 5:20; Galatians 3:19).
- 3) Through trials in the wilderness, God exposed Israel's inner sinful nature and taught them reliance on His grace (Deuteronomy 8:2,16).

2. The Law Given to Adam: The Beginning of the Redemptive Plan

- 1) God's command to Adam (Genesis 2:17) was the first moral law, establishing a standard for obedience.
- 2) This law revealed the reality and consequence of sin, setting the stage for redemption and the eventual coming of Christ (Romans 5:12–21).

3. The Function of the Law: Highlighting Despair and Pointing to Grace

- 1) Without law, there is no awareness of sin; but where sin abounds, grace abounds even more (Romans 5:20–21).
- 2) The Law leads humans to despair so that they can truly appreciate God's grace.

4. Satan's Fall and Divine Justice

- 1) Satan's rebellion predated the creation of man, but no law in heaven could judge him.
- 2) God created humans and gave them the law to establish a judicial basis for Satan's judgment (Hebrews 2:14–15; Jude 1:6).
- 3) Satan deceived Adam, thinking he had won, but instead, he fell into God's legal trap and was condemned.

5. God's Eternal Plan of Grace in Christ

- 1) Adam's fall did not surprise God; it was foreseen in the eternal counsel (Ephesians 1:3–6).
- 2) Through Adam's sin, the way was opened for Jesus Christ to come as Savior, manifesting the full scope of divine grace.

- 3) Before Adam sinned, there was no promise of eternal life, heaven, or divine sonship—these blessings are post-fall gifts of grace through Christ.
-

4. 바울신학으로 정리: 율법과 복음 - 아담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

1. 아담에게 주신 율법: 구속사의 출발점

- 1) 창 2:17의 선악과 명령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죄의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초였다.
- 2)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, 율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순종 또는 불순종이 죄가 되도록 구조화하셨다.
- 3) 아담의 범죄는 인간 타락의 시작이지만, 동시에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속의 길을 여는 은혜의 통로였다.

2. 모세에게 주신 율법: 죄를 명확히 드러냄

- 1)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 거역한 것은 죄에 대한 무지와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다.
- 2) 하나님은 은혜 위에 율법을 더하셔서(갈 3:19), 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, 율법의 무능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가르치셨다
- 3) 율법은 의롭게 하지 못하며, 다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(갈 3:24).

3. 죄의 확대와 은혜의 넘침: 하나님의 경륜

- 1) 바울은 율법이 죄를 증가시키기 위해 주어졌고, 그 목적은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함(롬 5:20).
- 2) 결국 인간은 율법 앞에 절망하게 되고, 절망 속에서만 참된 은혜의 복음을 갈망하게 됨.
- 3)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신 후, 은혜로 믿는 자에게 의를 전가하신다(롬 3:21-26).

4. 사탄의 타락과 하나님의 법적 심판

- 1) 사탄은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범죄했으나, 당시 하늘에는 그를 심판할 법이 존재하지 않았음.
- 2)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율법을 주심으로,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했을 때 그 법에 의해 정죄받게 하심.

- 3) 결국 율법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, 사탄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드러내는 도구였다.

5.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: 바울 신학의 핵심

- 1)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으며,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됨을 선포함(롬 5:12-19).
- 2) 그리스도는 제2의